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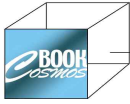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지음 / CLC

“만약 20세기 전체의 주요 특징을 내게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아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며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 자아를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려 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 자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

www.bookcosmos.com

본 도서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인가를 얻어 (주)북코스모스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전재나 무단복제 및 전송을 금합니다.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자아를 찾아서

지음

CLC / 2014년 3월 / 317쪽 / 16,000원

▣ 저자 권오균

교육대학원 재학 중 도미 유학

에즈버리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풀러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주석 연구

로스엔젤레스 칼 윙 학회에서 심층심리학 연구

현) 웨퍼드 대학교 교수

베데스다 대학교, 객원교수

라이프 대학교, 초빙교수

생수의 강 교회 교육목사

저서: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참 자기』

▣ Short Summary

솔제니친은 “만약 20세기 전체의 주요 특징을 내게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아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며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 자아를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려 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 자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

▣ 차례

들어가는 말

1부 잃어버린 얼굴

제1장 얼굴 없는 사람들

제2장 성격의 가면

제3장 참 얼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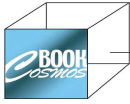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제4장 참 자아상과 정체성

제2부 참 자아와 거짓 자아

제5장 ‘참 자아’를 찾는 길

제6장 참 자아와 거짓 자아

제7장 죽음으로 찾은 참 자아



3부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

8장 하나님의 형상

- 제9장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발견되는 참 자아
- 제10장 하나님과 상호관계성 안에 있는 참 자아

제4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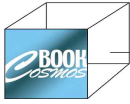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 제11장 그리스도는 참 자아의 원천적 원형
- 제12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원천적 원형
- 제13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 자아
- 제14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길

제5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참 자아

- 제15장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참 자아
- 제16장 하늘의 차원에 속하는 참 자아

제6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 자아

- 제17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자아
- 제18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자아
- 제19장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참 자아



자아를 찾아서

지음

CLC / 2014년 3월 / 317쪽 / 16,000원

제1부 잃어버린 얼굴

없는 사람들

호손의 『목사의 검은 베일』이라는 단편에는 한 작은 마을 교회의 담임인 후퍼 목사가 등장한다. 그런데 어느 주일, 후퍼 목사가 얼굴에 검은 베일을 쓰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베일을 벗지 않는 것일까?’ ‘혹시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긴 것일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베일을 쓰고 다니는 것일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베일도 마을에서는 점점 일상이 되어갔다. 가끔씩 베일 속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후퍼 목사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왔다. 사람들은 그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베일 속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때 다 죽어가던 후퍼 목사가 여전히 베일 쓴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보며 소리쳤다.

“내가 평생 쓰고 살았고 이제 쓴 채로 죽을 이 상징물 때문에 나를 괴물로 보십니까? 둘러보면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검은 베일이 보입니다!”

성격의 가면

본래 성격(personality)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가면(Persona)에서 나왔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가면에 씌워져서, 그 가면을 진짜로 착각하고 살다보면, 그 가면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배우 같은 성격장애 혹은 히스테리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듯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에 빠져 있음이 확인될 때 자존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만,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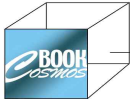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회피하는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자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린다. 열등감이 심할수록 상처의 고통이 두려워 완벽주의자가 된다.

자기애적인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자는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를 기대한다.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적인 면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희생과 감정에는 무감각하다.

의존적인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자는, 과도한 충고나 확신을 외부로부터 받지 않으면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는 물질이나, 사랑이나, 자존감이나, 지식이나, 쾌락을 얻으려면 모두 외부에서 얻어야 한다고 느낀다. 남에게 기생하여 살려 하는 욕구가 강하다.

망상에 사로잡힌 듯한 강박적인 성격 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들은 대개 감정이 메마르고 정서를 느낄 줄 모른다. 자신의 표준이 높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주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편집증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라는 가면을 쓴 자는 모욕이나 상처받은 것들을 용서



못하며, 의심하고 냉소적이고 쉽게 화내고 공격한다.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자는 종종 가까운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정서적으로 차갑거나 기가 죽은 상태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해 보인다.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의 가면을 쓴 자는 자신에 대한 불안정한 이미지로 인하여 방황한다. 이들은 신경증과 정신병의 두 가지 범주 중에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그 경계선에 있으므로 경계선 성격장애라 한다. 이들은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고 휴전선같이 늘 긴장이 감돈다. 상대방을 불신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 12:2).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를 덮은 가면이 벗겨지고, 본 얼굴이 드러난다. 이 모든 가면무도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드러날 때, 모두 끝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쓴 모든 죄악의 가면을 벗겨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와 같은 얼굴로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

참 얼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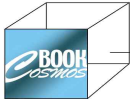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우리의 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의 그리고 거룩함과 진리와 선, 미와 지혜를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얼굴에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반짝거릴 때 그 얼굴에서는 천국의 향기가 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다시 뵈을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진짜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린도후서 3:18)

참 자아상과 정체성

우리의 참 자아상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요한일서 5:18)이다. 참 자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상호관계 안에 존재하도록 지음 받았지만 자신들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교만히 행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아담과 반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지만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비움으로 채움을 받은 ‘참 자아’의 원천적 원형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우리의 참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자기 망상(self-obsession)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며,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전부이기 때문이다(골로새서 3:4). 또한 하나님 속에 흡수되어 하나님 망상(god-obsession)에 빠지지도 않는다.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아를 말한다. 보이는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실체와 존재로서의 나는 없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강조하며 “자아의 촛불을 꺼라. 그리하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편, 무아를 강조하는 불교와는 반대로 힌두교에서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로서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의 실체인 자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아(Atman)는 대아(Brahman)에게 합일하여 흡수되는데, 이는 빗물이 자기가 왔던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로마서 8:16)하신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기뻐 춤추게 된다. 이때, 부정은 거룩함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심은 이타심으로, 상처는 영광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산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거울 너머의 세계』 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진리를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자,
이제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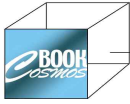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2부 참 자아와 거짓 자아

자아를 찾는 길

햇빛을 받아야 식물이 살 듯, 어린아이는 자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급받아야 살아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아이는 진정한 자아를 망각한 채 상처를 주는 그 생명공급자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자아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거짓 자아는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불안하며, 분노와 쓴 뿌리를 씹으면서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무서운 압박감 속에 산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졌다.

어릴 때의 상처로 내면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 성인아이의 거짓 자아도 있다. 이때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인 ‘참 자아’는 그 상처나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나는 너를 본다. 네 안에 계신 그리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위로하며 포용해 준다. 이 말을 받아들인 아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받아 치유되며 성장한다.

찾은 참 자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같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게 하셨다. 우리의 거짓 자아도 죽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생명인 참 자아로 거듭나게 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한복음 12:25).

퍼넬론이 말했듯,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다. 그러나 이 거짓 예고가 죽기 전에는 진정한 자아가 살 수 없다. 이 예고가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참 자아’가 드러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울은 기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로마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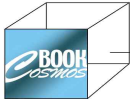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게 된다. 회심이란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레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는 그 경험을 <나의 회심>이라는 글로 말한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3부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점이 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 인격 혹은 영혼에서 그의 단순성, 영성, 영원한 생명 등의 품성들과 지, 정, 의 등의 심력들과 자의식 및 자결성의 능력, 사랑, 지식, 의와 거룩함, 선과 아름다움을 포함한다. 칼뱅은 이 ‘형상’에 대해 말할 때 외적 모양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모양이 동물과 우리를 구분해주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게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기를 상징하는 것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 상(像)과 구별되지 않는다. 실로 심리학은 자기와 하나님의 상(像)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신



칼 바르트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고, 웅은 기독교 신앙의 미래는 “각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얼굴 안에서 발견되는 참 자아

인디안 부족인 이로퀘이스 사람들은 몹시 사납고 폭력적이어서 이웃 부족과 계속 전쟁을 했다. 그들 중에 용감한 사람들은 전사가 되기 위해 양육되었고 그들의 문화는 습격, 잠복, 사나운 승리의 신화와 가치들로 가득했다. 그때 하나님의 사도가 그 마을에서 가장 위대하고 피를 많이 본, 사람까지 잡아먹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식인종은 어떤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잡은 사람의 몸을 먹음으로 그의 힘을 받게 될 것이었다. 큰 냄비가 불 위에 놓였는데, 굴뚝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의 얼굴이 그 냄비의 기름에 완전하게 반사되었다. 그 순간 그 반사되는 얼굴을 본 식인종은 그 얼굴에서 솟아나는 지극한 고상함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얼굴은 아마도 그동안 최악의 쓰레기 속에 묻혀왔던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기억나게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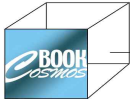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저것이 나의 얼굴이다. 이 얼굴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힘을 훔치기 위해 그들의 육체를 먹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저것은 사람들을 함께 이끄는 얼굴이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자의 얼굴이야.” 그는 요리하던 냄비를 밖으로 내다버렸다.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은 이 사람은 하이 어워사(Hi-awatha: 롱펠로우의 시에 나오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영웅), 치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편 27:8, 80:3).

하나님과 상호관계성 안에 있는 자아

마틴 부버는, “나는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로소 내가 되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라고 했다. 그가 『나와 너』에서 말했듯, 나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로 이끌어 준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 ‘나’가 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의 대응적 존재로 삼으시려고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했다.

토마스 머튼은 “나의 참된 정체성은 내 자유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께 답하는 나의 응답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또한 달라스 윌라드는 “사람이란 말하고 듣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속 진행되는 대화 속에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고 산다. 본래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참 자아는 자기대화 가운데서도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관점이 있다. 혹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육신에 약함이 있어도 “나는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과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며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4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 자아

참 자아의 원천적 원형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의 원천적 원형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안다. 퍼즐을 맞출 때 밝은 색, 어두운 색들이 섞인 이상한 모양들의 수백 가지 이상의 퍼즐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그 퍼즐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준 원래의 그림 형태를 보면서 맞춰 나가면 아름다운 모양의 집이나 그림들이 나타남을 본다. 마찬가지로 퍼즐보다 더 복잡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의 원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 빛 가운데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삶의 위기를 체험하셨고, 슬픔의 사람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는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지만 무엇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자기욕망을 달성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 자아는 오직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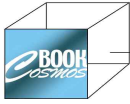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원천적 원형

우리가 참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면, 자아는 키르케고르가 언급했듯이 “자아를 존립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 속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

기원전 2000년에, 니스웨에서 발견한 진흙 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 이 무도한 유령을 어찌해야 떼어낼꼬. 여러 날 동안 이 무시무시한 망령이 나를 고약하게 괴롭혔도다. 유령은 내 등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 도다. 고요한 밤에 공포가 엄습해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눈은 튀어 나오는구나. 유령이 힘을 모두 빼앗아가는구나. 왜 이 유령은 나를 택하였는가? 어찌 그를 달랠꼬. 어찌해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악의 영과 어두운 혼은 ‘한(恨)의 태고유형(archetype)’에 속하며 이들은 인간을 갇히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원형(Prototype)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악의 영과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 태고유형(archetype)이란 국어사전에 ‘인간의 정신 내부에 존재하는 조상이 경험한 것의 흔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인생의 전형적인 삶의 사건, 장면과 같은 수많은 태고유형들이 있다. 이는 무한한 반복에 의해 이러한 경험들이 인간의 정신 속에 새겨진 것이다”라고 했다.

원래 태고유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켰으나, 죄악으로 깨어진 사람의 정신 속에 한 맺힌 다른 태고유형들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양식이나 생각의 유형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 바울은 자신이 싫어하는, 자기 ‘지체 속의 죄의 법’(로마서 7:23) 아래 갇히는 것을 한탄했다. 특히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한의 태고유형들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21-23).



정신 속에 잘못 심어진 모든 한과 가짜자아의 유형(archetype)을 그리스도의 원형(Prototype)이 정복하고, 치유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아를 찾게 된다. 우리를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원형은 모든 한의 태고유형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사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한의 태고유형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골로새서 1:13). 그러므로 몰트만은 그의 책 『생명의 영』에서 “인간 생존에 절대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소생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로마서 8:1-2).

두려움과 자괴감과 불안감 등의 한의 태고유형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우리를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다. 영이 깨어 있다면 우리의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부지중 사고로, 혹은 낙태나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경우에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고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안에서 항상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지켜 주시며, 그 아이를 대신하여 상하고 찢기는 것을 본다. 고난당해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적 몸을 입는다. 낙원에 계신 그의 영원하신 팔에는 버려졌던 아이가 살아 온전한 모습으로 편히 안겨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상 그 어떤 비극이나 죽음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기 때문이다”(골로새서 3:3).

형상을 이루어 가는 참 자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의 생명이 그의 지체된 우리의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천국의 능력을 체험한다. 필자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하던 김중성 선교사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여러 해 동안 돼지들을 주민들에게 사육하게 해 주며 선교를 해오고 있다. 그가 사역하는 가나에는 한 백발의 노의사가 와서 마을 광장에서 줄지어 오는 많은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진료해 준다고 했다. 그런데 환자들을 자기 몸같이 돌봐 주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거룩한지, 그 백발의 노의사의 모습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노의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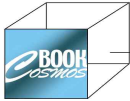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신다.

5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참 자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참 자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3).

현재 만물의 안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굳게 붙들기 때문이다. 원자핵 안에서 불안정한 양성자는 강한 힘으로 밀쳐내어 폭발하고 붕괴될 수 있지



그대로 유지된다. 원자핵 주위로 전자들이 빛의 속도로 돌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존된다. 은하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중력이 은하계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우주학자들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물질을 서로 잡아당기고 떼어놓으면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 우주는 아직도 68%가 신비에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차원에 속하는 참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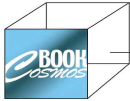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 우주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1). 여기서 하늘(쉬메)이라는 단수 대신 ‘하늘들(쉬마임)’이라는 복수가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고 기록한 바 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낙원이었다. ‘하늘’은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다차원으로, 내면적이며 초자연적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0-21)고 말씀하셨다.

초끈 이론 학자들은 10차원의 우주가 창조의 순간에 4차원의 현실 우주와 5차원부터 10차원까지 6개 차원의 초현실 우주 두 우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대칭구조인 두 개의 우주 중 한쪽 편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현실 우주를 성서적 의미의 ‘하늘’로 그리고 4차원의 현실 우주를 ‘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지만물은 초미세의 진동하는 끈들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고차원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멤버링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상실과 고난, 그리고 일생에 일어나는 알 수 없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끈에 매어져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리사 랜들은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초끈 이론을 뛰어넘을 ‘여분차원’(extra dimensions) 이론을 발표했다. 『숨겨진 우주』로 과학계 베스트셀러를 내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그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세계의 꼬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는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1개의 차원을 합쳐 4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섯 번째 공간인 5차원이 있다. 그런데 이 5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엔트로피는 우리가 사는 시공간 4차원에서는 작용하나, 고차원의 하늘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는 5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접근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게다가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이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시공간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에게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놀랍게도, 고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위에서도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의 책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로 완성되어 가는 단계를 10층의 기본 구조로 보았다. 3차원까지는 육에 속한 자연인이다.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영원한 분향을 모른다. 이들은 식욕과 정욕에 지배되는 감각적인 본성을 가진 자이다. 그런데 3차원에 시간이 더해진 4차원의 인생은 자신의 날들을 기억하며 창조자를 생각하게



. 원죄를 지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4차원의 궤도에 진입한 사람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서, 마음에 쓴 뿌리가 있고 생명 없는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다. 이들은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용서를 받거나 주기에도 자유롭지 않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에 매우 민감하다.

4차원의 궤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궤도와 맞달아 있으나 미끄러지고 결함하지 못한다. 나비로 탈바꿈을 하지 못한 번데기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둠속을 맴돈다. 육신의 차원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 초현실적 우주의 하늘에 속하는 영적 5차원으로 진입해야 본궤도에 오르는데, 이곳은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의 영역이다. 이들은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초탈’의 경지에 이른 자들로, 완전히 초탈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어디에 속하거나 있으려 하지도 않으며, 무엇을 가지려 하거나 되려고 갈망하지도 않는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초탈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췌 떤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췌 떤 아이와 같도다”(시편 13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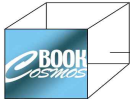
6차원에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더욱 더 변화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 땅의 4차원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 이들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치며 10차원으로 나아간다. 무한대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8자형 뫼비우스 밴드가 양면이나 실제로는 한 면으로 계속 이어지듯이, 참 자아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한 영이 되어 영원한 사랑의 춤을 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인간의 발달은 더 높은 차원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은 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식의 가장 깊은 곳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로마에서 고향으로 갈 배를 기다리면서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는 환상을 통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이때, 어거스틴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의 대화는 육체적 감각이 아무리 강렬하며 아무리 찬란한 물질적 광채 속에 즐기는 것일지라도 모두 비교할 가치조차 없고, 새 생명의 기쁨 외에는 기억할 가치조차 없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향해 더 간절한 열망에 빠져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육체적 피조물들을 가로질러 천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상으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묵상과 주님의 역사에 관해 경이로운 대화를 통해 거기서도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우리 마음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마저도 초월하여 다함이 없는 풍요의 나라에 도달했습니다.”

6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 자아

타고르의 『기탄잘리』에 다음과 같은 서정시가 나온다.



... 느닷없이 너는 오른손을 내미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내게 줄 무엇을 가졌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너의 손바닥을 피시다니 그건 또 얼마나 왕자다운 농이였겠습니까? 나는 얼떨떨해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한 작디작은 곡식의 낱알을 미적미적 꺼내어선 너에게 드렸지요.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내가 마루 위에 자루를 털었더니 그 초라한 무더기 가운데 한 작디작은 황금의 낱알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 때 내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몹시 울었지요. 너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내가 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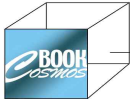
제레미 린은 대만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졸업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에 입단하지만, 성적이 저조했다. NBA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린은 반년 만에 방출되고 만다. 그 후 휴스턴 로케츠 팀에 입단하지만 2주 만에 다시 방출된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좌절한 린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증명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다짐이 있던 2011년 12월 말, 뉴욕 닉스 팀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전히 벤치 신세의 연습생이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만이 가지는 자유함이 있었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과 팀 동료들을 볼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적의 환경임을 깨닫는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준비되어갔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농구를 하니 경기가 거뜬될 수록 그를 중심으로 팀이 빛을 냈다. 2월 15일 6연승에 도전하는 뉴욕 닉스는 토론토 랩터스 팀과 만나게 된다. 마지막 회, 87:87 동점 상황에서 린은 종료 10초 전에 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부리그를 전전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 했던 작은 체구의 동양인 린, 그러나 승리를 결정짓는 그의 마지막 골은 골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한 것이었다. 그는 오늘도 승패와 인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며,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자아에 연결시킨 후에 그분의 창조의 최고의 경지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연의 자아’가 되어, 우리의 존재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고 했다. 또한 토마스 머튼은 “지상에서의 유일하고 참된 기쁨은 거짓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모든 존재의 본질 안에 그리고 우리 영혼의 중심에 거주하며 노래하시는 생명이신 분과 사랑으로 일치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주를 따르고 그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참 자아는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열망들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뿐 아니라 슬픔에 처한 우리를 기쁘게, 상처 입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

로스앤젤레스의 성경학교 설립자인 토레이 박사는 12살 된 딸을 사고로 잃었다. 비가 오는 날 장례식이 있었다. 어둡고 침침한 날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와 새벽까지 이어졌다. 토레이 박사는 침상에서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슬픔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 딸아이의 존재가 사라짐에 대한 고독감, 다시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라나는 성장과정을 볼 수 없음에 가슴이 미어져왔다. 그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가로등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영이 성령의 리듬을 따



기도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그 체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바로 그때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우물처럼 샘솟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힘으로 용솟음쳤다.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솟구치고 또 솟구치는, 일년 365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솟아나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런 것이었다.”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